

손학규, 이념 탈피 民生속으로

대표 취임 이후 연일 급식소·농가 방문 실사구시 구체화...당 일각 싸늘한 눈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연일 민생현장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실사구시의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표 취임과 함께 제시했던 '새로운 진보' 노선을 '탈이념 실사구시'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15일 인천 북부고용지원센터와 대우일렉트로닉스 작업훈련원,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를 방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양재동 화해공판장과 화해농가를 방문해 직접 일손을 도우며 농가 체험에 나섰다.

17일에는 정부 측과 설 물가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운용의 키를 직접 쥐는 모습도 보이고 이후에도 한동안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민생 행보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당의 정책노선이 실용보다 이념에 기울어져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당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호응을 얻었던 '민심 대장정'을 정책 좌표 설정과 결합, 무능한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여기에 당 안팎에서 가중되는 쇠신 요구에 대한 처방을 '인적 쇠신' 대신 '정책 쇠신'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내부 이탈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의 실사구시 행보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쇠신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민생 행보에 나설 것인가는 것이다.

수도권 모 초선 의원은 "손 대표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진정한 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당내 쇠신책 등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외부로 돌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듯 손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의 연쇄적 접촉을 통해 당내 입장을 다지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4일과 15일 충북 의원들과 인천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을 가진데 이어 16일에는 서울지역 의원들과 초선의원 18인 그룹의 문병호 의원과도 별도 면담을 가지며 당 내부 안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지사가 최근 뉴햄프셔주 내슈어의 한 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맞이하며 한 아기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와신상담' 롬니 천금같은 첫 승

미시간주 예선 매케인 누르고 승리

미국 대선 미시간주 공화당 후보경선에서 15일(현지 시각)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승리했다고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흑한 속에 치러진 미시간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2위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꼽히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는 마이크 허카비 전 아칸소 주지사,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각각 승리한 데 이어 미시간주 경선에서는 롬니 전

지사가 승리를 기록함으로써 공화당 경선은 혼전 양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시간 태생으로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낸 롬니는 초반 전략지역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미시간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승세를 굳힌다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첫 두 지역에서 연거푸 패배한 뒤 미시간에서 가까스로 이겨 만회의 발판을 마련했다.

롬니 전지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일주일 전만 해도 승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이 나서서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들려줬다"며 "오늘 밤은 미국을 위한 '깜백'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롬

니는 미시간주 유권자들이 세금 감면과 불법이민, 의료보험, 안보 등 자신이 제시한 각종 공약을 지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날 경선 결과는 "위험천만 비판주의에 대한 낙관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2위를 기록한 매케인 의원과 3위에 머문 허카비 전 지사도 패배를 시인하고 롬니에게 축하를 보낸 뒤, 앞으로 네바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 주력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지지자들에게 밝혔다.

롬니는 부친이 미시간 주지사와 이 지역 자동차회사 경영자를 지낸 강한 연고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경선 후보로 꼽혀왔으며, 자동차 산업 침체에 따른 실업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해 경제전문가인 그에게 많은 표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정원장 사표 수리 신중한 검토 필요"

청와대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로 선회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전호선 홍보수석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물론 김 원장의 사표 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또한 사표 수리를 단정해서도 안된다는 게 이날 청와대 분위기였다. 특히 전날에는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이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설명에 비중을 할애하면서,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 규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천 수석은 "김 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설사 김 원장을 퇴진시키더라도 사건의 성격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국정원 배포 문서 내용을 당연히 국가기밀이고 비밀문서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비대위 구성

자주파 배제 평등파 인사 위주

민주노동당 내 소수파인 평등파(PD)의 지원을 업고 출범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16일 다수파인 자주파(NL)를 배제하고 평등파 성향의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 강도높은 당 혁신작업을 예고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길기수 강원도당 위원장, 김용한 경기도당 위원장, 김병일 전 경북도당 위원장, 정종권 서울시장 위원장,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엄경석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평등파 또는 반(反)자주파 성향으로 대체로 당의 전면적 쇠신을 통한 리모델링에 공감하고 있는 그룹이다. /연합뉴스

자유신당 이번주부터 시·도당 창당 작업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창당을 준비 중인 '자유신당'(가칭)은 이번 주내로 강원과 전북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당 창당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창당준비위는 16일 조직 분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내주 초부터 시·도당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보다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이다.

우선 강원도의 경우,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02~2006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선 시장을 역임한 유종수씨가, 전라북도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나경관 전북희망포럼 대표가 도당 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 지역도 조만간 시·도당 책임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내주에는 창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신당은 중앙당 창당일인 2월1일까지 16개 시·도당을 모두 갖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창당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중심당의 6개 시·도당이 합류 방식을 놓고 자유신당측과 '불협화음'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신당측에서 중앙당 창당 이전에 국중당의 6개 시·도당이 자진 해산하고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힐러리-오바마 승부, 에드워즈에 달렸다

민주당 경선 3위 유지...중도 사퇴 여부 촉각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최종 승리 여부는 지지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뉴욕 포스트는 이날 "에드워즈가 이제 사퇴할 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3일과 8일의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와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할 때 에드워즈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특히 에드워즈가 중도 사퇴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에 끝까지 참여하면 힐러

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중도 사퇴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오바마 의원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는 '리얼클리어 폴리티क्स닷컴'의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힐러리 의원의 지지도는 41%, 오바마는 3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에드워즈는 15%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에드워즈는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오바마 42%, 힐러리 30%의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15%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며 에드워즈의 중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마드리드서

'문명간 연대' 회의

인류의 문화와 종교 간 화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명간 연대' 제1차 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일 개막,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스페인과 터키 두 나라가 공동 주최한 문명간 연대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전세계 80개국의 민간 대표단이 참석했다.

반 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이 회의는 전세계를 위협하는 갈등을 치유하고 극단주의에 대처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연합뉴스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 한다

장정물로단,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그런데 최근에는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소변과 기혈순환을 촉진, 활기찬 삶을 되찾아주세요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장정물로단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한약입니다.

한방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노후 등에 효과적
한방물로(주) (주) 한방물로